

K-웰니스, ‘헤어·여성 제품’ 등 세분화… 북미 영토 재편

LG생활건강 ‘에이본’ 전격 매각
K-헤어 ‘닥터그루트’로 재공략

라엘 ‘360도 우먼 웰니스 케어’
여성 호르몬 주기 맞춤형 제품

실리콘투 ‘감탄브라’, 美서 인기

K뷰티가 유통 채널 재정비와 웰니스 육성 전략으로 북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비효율적인 공급망은 과감히 정리하고 현지 거점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또 스킨케어 중심의 기존 브랜드 자산을 더마, 헤어, 여성 생애주기 등으로 세분화해 ‘K웰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2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과거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였던 ‘에이본’을 전격 매각한다. LG생활건강 북미법인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에 매각하



미국 뷰티 편집숍 세포라 매장에 설치된 ‘닥터그루트’ 매대. /LG생활건강

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투자회사 리전트의 관계사이며, 매각 대금은 거래 종결 시점에 확정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4월 에이본 북

미 사업노권을 인수하며 추진했던 소셜 셀링(방문판매) 중심 판매 구조를 정돈한다. 당시에는 에이본의 현지 네트워크와 물류 인프라가 핵심 자산으로 꼽혔다.

이후 글로벌 화장품 소비 축이 이커머스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채널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주력 브랜드인 고급 헤어 브랜드 닥터그루트의 경우, 올해 미국 전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424곳에 정식 입점했다. 지난 3월 세포라 온라인 및 5월 주요 매장 선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 내 ‘K헤어’ 및 ‘넥스트 빅 씽’ 매대까지 켜졌다. 올해 상반기 미국 유명 온라인몰 아마존에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3% 폭증하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먼 웰니스 브랜드 라엘은 ‘360도 우

먼 웰니스케어’ 사업을 구체화한다. 글로벌 투자사 타이브룩 캐피탈 파트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다.

앞서 2017년 백양희, 아네스 안, 원빈나 등 한인 여성 3명이 설립한 라엘은 유기농 순면 생리대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여성 건강을 위한 이너뷰티 제품 등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타겟, 월마트 등 미국과 한국의 4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라엘은 여성 호르몬 주기 맞춤형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타이브룩 측은 “여성 생애와 안전성과 가능성을 갖춘 웰니스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라엘의 혁신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브랜드뿐만 아니라 K뷰티 유통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투 역시 카테고리를 다변화하며 ‘웰니스’를 선택했다.

실리콘투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에서 국내 언

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를 공식 선보였다. 개시 첫 주 만에 초도 물량의 60%를 소진해 누적 판매량은 400건을 넘었다. 특히 전 세계 20여 개 국가 주문 중 미국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다.

100% 현금 직매입 기반의 물류 및 유통 인프라를 갖춘 실리콘투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뷰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너웨어, 건강식품, 여성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패션 스타트업 관계자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북미 진출 경험을 보유한 브랜드나 유통사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며 “현지 규제 대응, 마케팅 등 전반에서의 역량이 K웰니스 부문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녹색건축인증’ 대응제약, 10월 인니 ‘할랄 의무화’ 대응

7개 분야 기준 거쳐 우수 등급 받아
친환경 자재,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
CDMO 고객사 요구에 유연한 대응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의 친환경 건축 성과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에 대한 ‘녹색건축인증(G-SEED)’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은 국가 공인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자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반을 종합 평가한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도 핵심 심사 항목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전경

/롯데바이오로직스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등 7개 분야의 기준을 거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 설비를 도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조성 예정인 시설에도 친환경 건축 원칙을 확대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은 생산 역량과 품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생산 인프라를 고도화함에 있어 친환경을 적극 실천해 글로벌 CDMO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도 유연하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식약처 등과 협력 기반 다져

대응제약이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협력 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응제약은 지난 7월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행사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했다.

대응제약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제품보장청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다. 특히 대응제약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통관 요건, 성분 안전성 평가, 할랄 라벨링 및 의무화 일정 등 주요 제도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식약처와 기업은 한국의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현지 등록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트라(KOTRA) 무역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규제기관·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양국 민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대응제약

갖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식약처는 이미 인증을 받은 공장의 경우 현장 심사 부담을 줄이고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섰다.

대응제약이소운 허가특허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기조에 발맞춰 독보적인 제조 및 수입 인프라와 할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에이지투웨니스 ‘동결 건조’ 파우더로 피부결 보정·유분관리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피부결 보정과 유분관리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내놨다. 에이지투웨니스는 ‘클라우드 컴포트 파우더 팩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파우더를 처방한 메이크업 제품 특유의 들뜸과 답답한 사용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극저온 동결과 진공 건조 과정을 거친 ‘동결 건조 기술’을 적용했다. 유효 성분이 피부 접촉 시 매끄럽게 녹아들어 파우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답답함과 들뜸을 보완한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모공 수 32.1%, 모공 면적 17.2%, 피부결 6.6%의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피지 흡착 효과는 80%, 24시간 수분 보존력은 71.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카 콤플렉스, 알란토인, 비타민 E 등을 복합한 ‘스킨 퍼스트 포뮬러’를 활용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셀트리온 ‘옴리클로 300mg’ 유럽 발매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제품군을 다양한 용량과 제형으로 구축해 처방 기반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300mg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옴리클로 75mg·150mg를 출시한 데 이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셀트리온은 옴리클로 300mg 출시로 환자 투약 편의성과 의료진 치료 선택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0mg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 번의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옴리클로 300mg을 사전충전형 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뿐 아니라 자동주사형 주사제(오토인젝터)로도 공급한다. 환자 상태, 투여 환경, 사용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옴리클로는 냉장 조건(2~8℃)에서 최대 2년, 실온(최대 25℃)에서는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오리지널 대비 긴 보관 기간으로 차별화됐다. 또 실온 보관 후에도 다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재냉장 기능을 통해 의약품 운송·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옴리클로 제품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실적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셀트리온 하태훈 유럽본부장은 “옴리클로 300mg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퍼스트무버의 시장 선점 효과와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남은 하반기 유럽에서도 주요국 입찰 수주, 낙찰 물량 공급 개시 등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피클볼’로 스포츠 마케팅 확대

내년까지 대한피클볼협회 주관

대회·행사에 ‘비타 500 이온키’ 지원

광동제약이 러닝, 마라톤 등에 이어 신홍 스포츠 영역에서 브랜드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대한피클볼협회와 공식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생활체육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피클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피클볼은 테니스·배드민턴·탁구의 장점을 두루 갖춘 라켓 운동이다. 지난 2016년 국내에 처음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고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7~30일에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광동 비타 500 이온키 KPA 협회장배 in 오크밸리’가 열린다. 청소년부터 액티브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출전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 역시 대한피클볼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광동제약이 후원한다. 광동제약은 순위에 따른 기본 시상 외에도 비타 500 이온키 브랜드명을 활용한 MVP, 활력상, 베스트퍼포먼스상 등 특별상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온음료 ‘비타500 이온키’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 실제로 비타500 이온키는 수분과 활력을 동시에 채우는 기능을 갖췄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향후 2027년까지 대한피클볼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비타500 이온키를 지원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대회 참가자들이 마음껏 경기를 즐기며 비타500 이온키로 활력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